

한국인의 등산 대회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의 여러가지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만, 등산 대회라고 하는 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냐 하면 한국인의 근성에 어울리는 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빠르기를 다투는 대회입니다. 시작은 참가자 각자 나뉘대로 준비를 하게 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합장소에 집합하게 해서 몇개나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이윽고 출발의 신호에 따라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인의 특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빨리 빨리 올라서 그리고 옆사람(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폭 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오면 또 빨리 빨리 오르는 것입니다.

한편, 대회 측은 함께 오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골인지점까지 비스듬히 거슬러 올라서 가는 것입니다. 즉 옆길(셋길 : 가로지르는 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올란 사람은 꼭대기까지 가면 힘이 빠지고 그대로 털석 주저않게 되고 맙니다. 그리하면 다음 사람이 또 달립니다. 이윽고 그 사람도 힘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하면 다음 사람이 달립니다. 전체구간을 8할 정도 되면 먼저 달린 사람들은 반이상은 힘이 빠져 버리고 대회는 어중간히 되고 맙니다.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나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어째서 이런 광경이 펼쳐질까요. 그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어째서 달리는 것일까요. 나도 그 사람의 한사람인 것입니다만, 이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왜 일까요.

옛날부터의 습관은 아닌 것입니다. 요즈음 생겨난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